
5 분 자 유 발 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산공원 가꾸기 제안-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49,196명으로 5만 명의 벽이 무너졌고,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한정적인 재원을 분산하지 않고 거점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해 보면, 인구 5만 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고성읍을 선택하여 인프라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의원은 고성의 보물인 남산

을 체계적으로 가꾸 외부에서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산 가꾸기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진자료1)

남산의 면적은 약 79만 8천 제곱미터로 구역마다 대나무숲 길, 목련 동산 등 다양한 주제로 공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산 전체 면적을 보면 아직도 다른 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공원을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남산 가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큰 틀에서 남산을 새롭게 재조명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자료2)

예를 들어 진주 이반성면에 있는 경상남도수목원

에는 단풍나무길, 은행나무길, 식물원, 잔디 광장 등의 공간이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국내 의정연수로 남이섬의 주요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로는, 남이섬의 면적은 약 46만 제곱미터로 남산보다도 작지만 내부에는 메타세콰이어길, 정관백련지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 과 함께 각종 전시, 공연 및 다채로운 행사 운영 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남산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남이섬과 경상남도수목원에 버금가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방문객의 발길을 이끄는 고성군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경사가 가파른 지형에는 거제맹종죽 테마파크의 어드벤처 체험장이 나 출렁다리 같은 체험시설 설치, 거제 정글돔 같은 식물원 조성, 현재 단방향으로 조성된 무장 애길 산책로를 연결하여 순환형으로 정비하는 등 남산을 가꾸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자료3)

공원 한편에 있는 문학동산도 지금보다 면적을 넓혀 제대로 조성하고, 문학동산 맞은편 경사면에는 앞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언급했던 역사인물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남산에 역사인물공원과 문학동산을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지역의 인물을 알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문화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진자료4)

또한 남산은 산과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남산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팔각정 주변에 바다 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망원경과 섬 안내판 설치를 제안하며 곳곳에 전망대와 포토존을 조성하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사진자료5)

이와 함께 저녁에는 야경스팟으로 활용하여 낮부터 밤까지 시간에 구애 없이 남산에 올 수 있게 하면 방문객도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산을 가꾸는 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억 8천만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유지보수에 쓰기보다, 모두 모아 남산을 제대로 가꿔봅시다. 옛말에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의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성군 행정과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남산 가꾸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명품 남산공원이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

점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산공원 가꾸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